문영남 작가 vs 김순옥 작가 | 안방, 막장은 계속된다

막장 대모들 '수목 빅매치'

문영남 작가 '왜그래 풍상씨'로 컴백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와 승부
수목 드라마 첫 맞대결…안방 관심

문영남 작가가 내년 1월9일 방송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왜그래 풍상씨'로 돌아오면서 '막장 대모들의 빅매치'라는 흥미로운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경쟁 상대는 현재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를 달리는 SBS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이다. 이들은 쓰는 작품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드라마 내용으로 논란을 빚는 공통된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문영남 작가와 김순옥 작가의 동시간대 맞대결에 벌써부터 방송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작가 모두 속도감 있는 이야기 전개로 시청자의 속을 '뻥' 뚫어주는 필력을 보여줬지만 한편으론 자극적인 설정과 개연성이 부족한 내용으로 '막장 작가'로도 불린다. 하필 같은 시간대 드라마를 통해 맞붙으면서 누가 더 시청자를 '자극'할지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김순옥 작가는 '황후의 품격'을 통해 '막장 작가'라는 수식어를 다시 입증하고 있다. 극중 태항호가 전신성형에 가까운 다이어트로 최진혁이 된다는 설정부터 신은경이 이엘리야를 향해 시멘트를 들이붓는 장면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지적도 빗발친다. 하지만 시청률만큼은 승승장구다. 최근 14.6%(닐슨코리아)까지 치솟았다.

후발주자인 문영남 작가는 강점으로 꼽히는 가족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 '왜그래 풍상씨'는 중년남자가 네 명의 동생을 뒷바라지하며 겪는 좌충우돌 일상을 담는다. 독특한 작명을 고집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작가는 주인공 다섯 남매의 이름 역시 '풍상, 진상, 정상, 화상, 외상'으로 지었다.

두 작가의 대결 무대가 주말드라마가 아닌 주중드라마라는 점도 호기심을 높인다. '왔다! 장보리'(최고시청률·37.3%), '내 딸 금사월'(34.9%) 등 주로 주말드라마를 써온 김순옥 작가는 '황후의 품격'을 통해 처음 주중드라마를 집필, 시청률은 물론 화제를 잡는 데 성공했다.

주력 분야인 주말드라마에서 벗어난 문영남 작가도 시청률 제조기의 명성을 '왜그래 풍상씨'로 이어가기 위해 자존심을 걸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주중드라마를 집필하기는 1997년 '정 때문에' 이후 22년 만이다. 그 사이 '왕가네 식구들'(48.3%), '수상한 삼형제'(43.5%), '조강지처 클럽'(40.2%) 등 주말드라마를 통해 넘볼 수 없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1월 본격 대결에 돌입하는 두 작가의 경쟁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SBS가 '황후의 품격'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잘나가는 4인조 '위너', 새해도 위너?

1월부터 북미 7개 도시 투어 시작
송민호 이어 다른 멤버들 솔로도

올 한 해 남다른 성과를 낸 4인조 그룹 위너(강승윤·이승훈·송민호·김진우)가 내년에는 그룹 및 개별 솔로 활동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그룹 활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멤버들의 매력을 부각해 팬덤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활동 영역도 아시아를 넘어 북미시장을 겨냥하며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할 발판까지 마련해 새해 빚어낼 결실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국내에서 이미 시작됐다. 최근 발표한 싱글 '밀리언즈'가 25일 현재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네 멤버들이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은 청량감이 가득한 곡으로 연말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앞서 멤버 송민호가 발표한 첫 번째 솔로곡 '아낙네'와 나란히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선을 끈다. 두 곡이 순위를 다투자 팬들이 '집안싸움'이라고 부를 정도다. 송민호의 '아낙네'는 위너가 곡을 발표할기 전까지 장기집권하며 흔들림 없는 인기를 과시했다.

덕분에 위너는 올해 데뷔 이후 가장 바쁘게 활동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은 여세를 몰아 내년 1월15일부터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북미 7개 도시에서 투어를 이어나간다. 그동안 활동의 가장 걸림돌이 됐던 긴 공백기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북미 투어를 마치자마자 2월에는 정규 3집 앨범 발표 계획도 세웠다. 틈틈이 앨범 작업을 해와 남은 기간 완성도를 높여 일정에 맞춰 앨범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민호를 시작으로 스타트를 끊은 멤버별 솔로 앨범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김진우, 강승윤, 이승훈 등 차례로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그룹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팬들 앞에 선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이필모·서수연씨 내년 결혼

가상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해 온 연기자 이필모·서수연씨가 내년 결혼한다. 이필모의 소속사 케이스타 엔터테인먼트는 25일 두 사람이 내년 봄 결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9월 종편채널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하면서 실제로 사랑을 쌓아왔다. 서수연씨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강단에도 서고 있다. 한편 연기자 유건이 7세 연하 여성과 3개월째 교제 중이라는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최강창민·혜리 등 스타들 기부

스타들의 성탄 시즌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설현은 20일 저소득 청소년과 아동보육센터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1억원을 기부했다. 그룹 동방신기의 최강창민도 저소득층 아이들의 난방비에 써 달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을 기탁했다. 걸그룹 걸스데이의 혜리 역시 25일 투병 중인 환아를 돕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을 내놓았다. 유연석과 손호준은 24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해 직접 기획한 기부 행사 '커피프렌즈' 열고 수익금 3260만원을 전했다.

하정우·이선균, 美 마라톤 참가

하정우·황보라·이선균

배우 하정우와 이선균이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호놀룰루 마라톤대회에 함께 참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황보라가 SNS를 통해 이들과 함께 대회 뒤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이들은 12월9일 호놀룰루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6시간 동안 내달려 42.195km를 완주하는 데 성공했다. 하정우와 이선균은 26일 개봉하는 영화 'PMC: 더 벙커'의 공동 주연이어서 그 우정이 더욱 눈길을 끈다.

#해시태그 컷

'섹시 산타' 제니·지수

섹시한 '산타'가 나타났다.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지수와 함께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섰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를 훤히 드러낸 빨간색 미니 드레스와 흰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의 모습에 팬들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인사를 건넸다.

#스포츠동아 #블랙핑크 #제니 #섹시산타 #메리크리스마스

편집 | 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